

이재명 영장 심사... 기각? 구속? 기로에 선 민주당

26일 심사 이목 집중... 기각 땀 '야당 탄압' 역풍·구속 땀 내부 분란
정치 실종에 국회 운영 식물 상태·대법원장임명동의안 표결도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26일 이뤄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민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사상 초유 사태라는 점에서 여야를 넘어 정국 전반을 뒤 흔드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지형까지도 영향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원의 영장심사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형성되는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정치 실종 사태=당장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막 단식에서 벗어난 당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원내 지도부마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회 운영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지만, 곧장 여야 협상에 임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준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날로 공식 종료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한 한 달이 넘어 갈 수 있다.

국회 운영이 멈춰지면서 주요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 등도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속내 복잡한 여론=일단, 여론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에 주력했다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대표직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국은 여론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론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감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거나 민

주당이 쇠신을 기치로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위기를 결집으로 이끌 만한 리더십이 부재 상황이라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여론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무리한 수사를 여론이 1년 이상 밀어붙였다면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론이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돼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어 '이재명 때리기' 공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총선 국면까지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둬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혼돈의 민주당=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야당 탄압론'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으로 공세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논란을 뒤로하고 통합을 기치로 당의 결집을 이끌고 민생에 집중하는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특히, 극한으로 치달은 계파 대립을 얼마나 봉합하고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프레임이 퇴색되며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내부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극심한 분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명계와 '육중 공천론'과 비명계의 '사퇴론'이 정면충돌하면서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떠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당내 통합과 결집을 이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정상 57년 만에 개방 환영과 아쉬움 ▶6면

위기의 전남산단-신산업 중장기 투자 나서야 ▶11면

광주시청 전용태, AG 근대5층 2관왕 ▶18면



23일 오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서석대를 지나 인왕봉 전망대로 즐지어 걸어가고 있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57년만에 정상부 상시 개방에 나섰다. ▶관련기사 6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인권도시 광주시' 내부 갑질지표 해마다 상승

광주시 공무원 56% "갑질 경험" 인사철 되면 노골적 줄서기 강요

광주시가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굵직굵직한 인권 이벤트를 통해 '아시아 대표 인권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내부 인권 '갑질 지표'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시 공무원 906명을 대상으로 인권·조직문화·갑질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공무원이 절반(56.1%)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언어폭력은 2020년 16.3%에서 2021년 18.3%→2022년 20.7%로, 따돌림·차별은 16.5%→19.2%→20.5%로, 부당지시는 16.8%→23.1%→23.7%로, 모욕·명예훼손 10.4%→15.8%→16.9%로, 사생활 침해 15.1%→18.9%→19.7%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갑질지표'가 매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더 심각한 부분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요구하는 공직사회임에도, 성적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2020년 6.3%에서 2021년 7.8%, 2022년 6.9%를 기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대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가 올 10월에도 세계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권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최근 '광주시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을 제·배포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형식적 가이드 라인' 보다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국장급 간부는 근평·전보·승진 등 인사절만 되면 노골적으로 직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해 조직 내 불만을 사고 있으며, A국장의 경우 객관적인 근평 배정을 건의한 여성 직원(7급)에게 "너는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더라"고 면박을 줬다는 발언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민간 사업 협상 업무 등을 주도하는 간부 B씨는 업무

협력이 필요한 타부서를 대상으로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업무 진행이 더디고, 직원의 반발도 사고 있다.

한 직원은 "부서간 협력을 해도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게 민간사업 행정업무"라면서 "업무 주무 부서(간부 B씨)에서 '이젠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져'라는 식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업무 처리에 적극 나서겠느냐"고 답했다.

최근엔 막말을 일삼는 간부의 이름이 직원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광주시 내부계사판인 '열린 마음'에 "수시로 회의만 하고, 직원에게 막말하는 간부가 있다.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평소 거친 언행을 일삼는 몇몇 간부의 실명이 거론된 것이다.

광주시의 한 직원은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작 광주시 조직 내부 문화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해안타깝다"면서 "다음 달 근평시즌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특정 부서에선 간부의 인사 갑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독서의 계절.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TV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은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해보세요.



하루 1kWh 줄이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 0.32 kWh/일